

### 다라니 수행은 긍정의 자기계발 수단

법상 스님 "기도하면 길 열려"



**다라니 수행**  
법상 스님 지음  
비움과 소통 퍼냄  
1만5000원



뜻을 안다고 해도 뜻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뜻을 해석하지 않고 오직 독송함으로써 좋은 마

한국 불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외우는 <천수경> 그 가운데 불자들이 가장 널리 외우는 <천수경>의 핵심 진언이 '신묘장구대다라니'이다. 뜻 모를 문자를 읽고 외우며, 단지 그냥 그렇게 해야하는 줄로만 알았던 다라니수행에 관한 자질이 나타났다.

법상 스님(일산 덕양선원·사진)은 최근 저서 <다라니수행>을 통해 <천수경> 원본인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일만부예대비심다라니경>을 처음으로 해설했다. 또, '광명의 깃발이자 신통의 보물 창고'인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통한 집중수행이 참된 행복을 불러오는 자기 계발서이자 긍정의 힘 사용설명서로 책을 편집해 펴냈다.

책은 다라니수행법 뿐만 아니라, 보리암보문사 낙산사 향일암 등 국내 4대 관음성지의 관세음보살상 사진과 故 만봉 스님의 관세음보살상 등 관세음보살도상을 컬러화보로 곁들여 읽는 이로 하여금 신심을 더 하도록 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천수대비주 대비주 천수다라니 대다라니 등으로 불린다. 이 진언은 무량아집전 천광왕정주여래가 처음 수행을 시작한 초지(初地)의 관세음보살과 일체 중생을 위해 설했다.

관세음보살은 천광왕정주여래로부터 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한 번 듣고 초지에서 제8지로 수행의 경지가 상승했다. 제8지는 부동지(不動地: 대승보살의 십지 중 여덟째, 무상의 지해가 끊임없이 일어나 번뇌에 흔들리지 않는 계위), 불퇴전지이다.

저자는 "관세음보살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한 번 듣고 이른 경지는 흔들림이 없는 경지이다. 청정한, 물들지 않는, 나고 죽음이 아무 관련이 없는 여여한 경지이다"라고 설명한다.

관세음보살이 한번 듣는 것만으로도 초지에서 8지로 경중 뛰어올랐기에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속초상지다라니(速超上地陀羅尼)'라고도 한다.

저자는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수지독송하게 되면, 보살 십지과위(十地果位)의 여러 단계를 차례로 거치지 않고, 즉시 본래의 마음자리에 들 수 있다. 빨리 오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말한다.

저자는 "해석하지 않고 뜻도 모른 채, 실사

음이 나오기 이전의, 좋은 글이 나오기 이전의 우리 생명의 본래자리에 닿는, 근원에 바로 닿도록 하는 수행이기도 하다. 뜻을 알지 못해도 오직 일심 독송함으로써 지혜와 자비의 광명에 바로 연결된다"고 말한다.

저자는 다라니를 집중하며 암송해 잡념이 사라진 상태가 돼야한다고 강조한다. 즉, 다라니와 나의 구분 없이 신묘장구대다라니만 뚜렷하게 남겨진 상태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모든 잡념을 다 버리고 오직 주인자리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에 '울인' 하셔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온 몸과 온 세포에 신묘장구대다라니가 스미도록 모든 정성과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 신묘장구대다라니에 '울인' 하면 무량삼매 이뤄지고 지혜·자비생겨

저자는 이때를 무량삼매(無量三昧: 한량 없는 삼매)가 이뤄지는 때라고 말한다. 또, 이것이 신묘장구대다라니의 빛이 되고 지혜덩어리가 되고 자비덩어리가 된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이 경지를 책에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다라니수행을 불자들의 구경독지를 위해서.

"다라니수행을 계속 하다보면 모든 마음이 사라져서 텅 비어버리고, 몸에 대한 느낌도 사라지고, 안이고 밖이고 다 맑고 밝아져서 오직 신묘장구대다라니만 뚜렷하게 됩니다. 그럴 때, 더 지극하게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본성입니다. 본성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책에는 부록으로 효성·수월·용성·상월·광덕·송산·통광 스님 등 한국 선지식들의 신묘장구대다라니 수행과 깨달음 경험담 수행법을 첨부했다.

저자는 "생각과 말과 행위에는 위대한 창조력이 있다"며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지송하면 탐진치 삼독심이 사라져 말이 맑게 바뀌고, 행위가 자비행으로 변화하며, 좋은 인연이 다가오고 성취가 이어진다. 삶이 뜻대로 열려가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조동섭 기자 oetana@hyunbul.com

서재탐방 | 은정희 前 서울교대 교수

## “괴도 루팡이 원효저술 번역의 씨앗 됐죠”

계층 간 대립과 갈등·분열이 고조된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과 '화합'이다. 불교에서는 이 같은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원효 스님과 화쟁사상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한다.

은정희(74) 前 서울교대 교수는 평생 원효 사상 연구에 몰두해온 학자다. 그는 원효 스님의 주요 저술인 <대승기신론소·별기(大乘起信論疏·別記)>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 <이장의(二障義)>를 완역한 인물이다.

원효 스님의 저술은 당시의 철학분야를 넘나드는 자유로움과 웅대한 스케일, 그리고 함축적인 서술로 인해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은 교수의 업적은 더욱 빛을 발한다.

은정희 교수가 수많은 불교사상가들 중에 유독 원효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그의 집을 찾았다.

은정희 교수는 "서재를 치우지 않아서 지저분한데..."라며 2층으로 안내했다. 거실에는 경전을 강독하는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주위에는 한문 번역을 위한 한자사전들과 <국역일체경(國譯一體經)> 등 전집류들이 꽂혀있었다.

은정희 교수는 2층에 있는 방 2개를 모두 서재로 쓰고 있었다. 그 중 한쪽 방문을 열어 서재를 보여줬다. 방 전체에는 도서관을 연상케 하듯 무수히 많은 책들이 진열 돼있었다.

"만권은 훨씬 넘을 거예요. 유학, 성리학, 장자, 노자를 비롯해 불교관련 서적들이 주를 이루죠. <팔만대장경> <남전대장경> <신수대장경> 그리고 일본의 인도·불교 철학자인 우이하쿠주 전집 등 굉장하지 않죠. 책이란 책은 거의 다 샀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독서광이었던 은정희 교수에게 원효학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 문제에 처음 눈뜨게 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괴도 루팡>을 읽으면서 시작했다.

"고성(古城)의 방들을 수색하던 탐정 조수가 '저기에 이따금 왕비와 위엄 있는 왕이 앉아있었겠지'라고 말하는 대목을 읽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앞에 있는 책상보다 내가 더 먼저 없어졌구나'며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두어 달 동안 거의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삶과 죽음에 대해 고민했어요"

은정희 교수는 정답을 찾지 못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자"고 결론을 지었다. 고등학교 시절, 은 교수는 신학대학을 나온 선생님의 영향으로 독일 역사가·문학철학자인 오스발트 슈펜겔러의 <서구의 몰락> <인간과 기술>과 영국 사학자 아놀드 조셉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 등을 읽으면서 문명 비평가, 사상가, 철학도, 역사학도 등의 꿈을 키워나갔다.

하지만 부친의 뜻에 따라 은 교수는 고려대 법대에 진학했고 수석으로 졸업한 뒤 취직이 되지 않아 아버지와 오빠, 세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2년 반 동안 했다. 그러다가 1960년 조계사 일요법회에서 이기영 선생의 <금강삼매경론> 강의를 들으면서 원효 사상을 전공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된다. 어릴 적부터 생사문제를 고민해 온 은 교수에게 이기영 선생의 강의는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기에 충분했다.

그로부터 8년 후, 은 교수는 고려대 철학과 대학원에



은정희 교수의 자택은 개인 도서관을 연상케한다. 만권이 넘는 그의 서재는 독서광인 은 교수를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 이기영박사 '금강삼매경론' 강의에 매료 생사문제 투철하게 고민하다 원효학 택해

진학해 본격적으로 원효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태동고전연구소와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조규철 선생 등에게 한문을 배워 원효 저술을 강독했다. 그때 동료 학자들과 모여 발표하고 토론한 강독은 원효의 저술을 번역하는데 큰 원동력이 됐다.

원효 저술을 완역할 수 있었던 것은 은정희 교수가 유년 시절 다독(多讀)을 경험한 것과 무심코 읽은 <괴도 루팡>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은정희 교수는 독서광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이광수, 김동진 작가들의 소설을 즐겨 읽었다.

"어린 시절 원효 스님의 일생을 생생하게 살려낸 이광수의 장편소설인 <원효대사>를 감명 깊게 읽었어요. 원효 스님과의 인연은 그때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죠. 김동진의 <운현궁의 봄>은 조선 말기, 왕권을 복원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한 흥선대원군의 이야기인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한 시대를 통찰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인고의 세월을 잘 그려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소 라즈니쉬가 위대한 인물 스무 명을 만나면서 현대인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는 <위대한 만남>은 은 교수에게 인생의 해답을 제시해 주었다.

현재 은정희 교수는 매일 학자와 제자들과 자택에 모여 <열반경종요(涅槃經宗要)>를 강독·역주하고 있다.

은 교수는 "40여 년 동안 한국의 불교사상가들을 섭렵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이들에 대한 정확한 번역서나 역주서가 너무 부족했다는 사실"이라며 "그래서 원문 이해에 필요한 한문·유식·논리학·구사·중관 등의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불교사상가들에 대한 보다 빠른, 보다 많은 역주서가 나올 수 있도록 후학 양성을 포함한

종단 내지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당부도 전했다.

원효에 푹 빠져 사는 미혼인 은정희 교수에게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원효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결혼할 거냐"고. 은 교수는 대답한다.

"결혼? 글썽요. 제가 할 일은 공부와 깨달음의 일입니다. 앞으로 사는 날 까지 제대로 원효의 주석을 철저히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헤민	쌤앤파커스
2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3	인생을 바꾸는 하루 명상	보경	조계종출판사
4	인생을 낭비한 죄	박원자	돌
5	엄마수업	법륜	휴
6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	명진	말글빛남
7	미움수업	이광정	휴
8	법정 나라 물들이다	변택주	불광출판사
9	젊은 날의 깨달음	헤민	클리어마인드
10	원각경이기에	황정원	운주사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지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는 분들에게)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대구 (지장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053)632-0078 범성스님 합장  
010-9243-0113

◆ 담당: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아자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 하여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2. 본인이 여러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한함, 재혼자 남·여 (가족 사항 자제히 기입 할 것)

-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지택유무

자비회에서는 궁합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 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 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주세요.

담당스님 만해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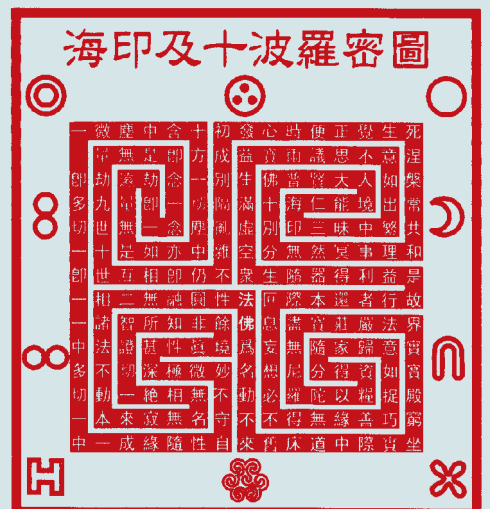
특허등록(30-0607637)

## 法性圖 所持者 成就一切萬法 消滅一切諸障礙

법성도 소지자는 일체 만법이 성취하고 일체 마장 소멸한다.

법성도는 신지요체 정법입니다. 혹 方便으로 사용하고있는 符籍보다는 천만배 이상 靈驗과 隨乘한 공덕이 있습니다. 회화나무 꽃으로 수제품 딱종이에 염색한 槐黃紙에 鏡面朱砂로만 특수 제작하여 불자님들께 護身(후대)용으로 영가 普及합니다.

호신용 액자용 부처님 점안 복장용 윤달 예수제용 등 주문제작합니다 槐黃紙 원지 판매합니다.



## 법성원

전화 : 051-532-1113, 010-8258-9963

홈페이지 : www.bswon.com

은행계좌 : 농협 837026-56-062884(이상경)

전국 유명불교 옹품점에서도 구입가능